

사회

# 광주관 '베토벤 바이러스' 희망과 감동을 연주하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교회 지하 연습실에서 주부, 학생, 정년퇴임자 등이 주축이 된 'CNS 윈드 앙상블'이 6일 공연을 앞두고 연주곡들을 연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두 번째 박자에서 소리를 줄이고, 네 마디째에서 서로 화음을 맞춰야 해요. 느린 곡일수록 정확하게 음을 내줘야 관객들이 곡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갑시다.”

일 오후에도 이들 광주관 '베토벤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은 하나 둘 연습실로 모여들었다. 창단 전 단순히 악기를 다루고 싶어했던 일반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 뒤 광주시향 소속 연주자 등 전문가들이 지도에

사람도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됐다”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조그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씨 이외에 광주시향 트롬본 연

## 주부·자영업자 등 30여명 'CNS 윈드 앙상블' 청소년·소외된 이웃 찾아 7차례 연주회 가져

나섰다. 그렇게 2년 만에 서둘러, 비교적 어려운 곡들도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7번의 연주회도 가졌다.

주자인 서용일(37)씨, 풀트 연주자인 이은지(여·29)씨 등 3~4명을 제외하면 모두 악기 '초보자'였다. 50대의 자영업자 행호재(53)씨는 점심시간을 뺀으로 대충 배우며, 색소폰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 주부인 이경선(39)씨는 평소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최연소자인

김연하(15)양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풀트를 더 하고 싶어서 연주단에 발을 들여 놓았다. 트럼펫 연주자인 남승진(51) 동아인제대 교수는 “일주일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모든 단원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전문연주단보다는 못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돼 한 곡 한 곡을 배워나가는 기쁨은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리넷, 풀트, 바순, 색소폰과 금관악기인 트럼펫, 트롬본, 호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인 드럼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오보에와 바순, 호른 연주자가 공식으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지휘자 추씨는 “앞으로 규모와 실력을 더 키워 예향 광주의 대표적 오케스트라단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모든 단원들의 꿈”이라며 “청소년 선드나 불우이웃돕기 공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시간 연습한 뒤 잠깐 휴식시간을 가진 합주단은 다시 맘마미아(Mamma Mia), 댄싱 퀸(Dancing Queen) 등 아바(ABBA)의 명곡들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CNS 윈드 앙상블'은 6일 오후 7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6회 남구 C&J 플루트 오케스트라에 특별출연해 리베르탱고 등 6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의료장비 납품 뇌물수수 광산구청 공무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5일 의료장비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고모(54·6급)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중순에 8천700만원 상당의 보건소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에게 '인제 구청에 들어오느냐' 등의 압력을 행사해 납품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진중권씨 '들보잡' 발인 모욕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재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죄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벨'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씨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들보잡'(들지도 보지도 못한 잡종)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성행위 춤' 지도래곤 음란혐의 조사

○공연중 청소년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지도래곤(본명 권지영·22)에 대해 검찰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착수.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검사 정필재)에 따르면 지도래곤은 지난 4일 밤 8시45분경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에 귀가했다는 것.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도래곤이 자신의 춤 동작 등이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지도래곤이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선보였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 /연합뉴스

## 목포 남교동 3층 상가건물 화재 행인들 이불 펼쳐 갓난아기 구조

불길을 피해 2층에서 단진 갓난아기는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했으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5일 오후 1시30분경 목포시 남교동 3층짜리 건물 1층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 세들어 사는 조모(여·28)씨는 불길과 유독가스가 번지자 유리창을 깨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어린 딸을 밖으로 던졌다. 당시 길을

## “수사 부실” 국가 상대 역대 손배소

### 남구 '4인조 금은방 강도 사건' 피해자 2억5천만원 청구

지난해 4월 광주시 남구에서 발생한 '4인조 금은방 사건'(본보 2009년 4월 17일자 6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B급은방 주인 김모(50)씨에 따르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3억원에 이르는 귀금속을 되찾지 못했다”며 최근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

다. 강·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 미흡'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은 지난달 29일 1차 변론을 거쳐 다음달 1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김씨 측은 광주지법에 낸 소장(訴

##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30년 법관생활 마감 퇴임

김관재(57) 광주고법원장이 5일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30여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김 원장은 퇴임사에서 “법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법원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당사자의 고민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형식적인 법리가 아닌 지혜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17회로 법조계에 입문, 광주고·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 원장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김남주 시인 추모제

내일 오후 5·18모지

강철처럼 강하고, 풀꽃처럼 부드럽게 민주시민과 통일을 노래했던 김남주(1947~1994년) 시인의 추모제가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고재중)와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윤)는 7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옛 5·18모지 김남주 시인의 묘 일대에서 16일 추모제를 마련한다. 이날 추모제는 김씨의 육성으로 시 '마지막 인사'를 들기, 시비제작과 생가복원 등 기념사업 보고, 부인 박광숙씨 등 유가족 인사 순으로 이어진다. 김남주 시인은 지난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얽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 동안 복역한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대표 시집으로 '진혼가' '나의 갈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8분 해질 18시 05분 달돋이 01시 06분 달질 11시 20분

**나들이 가기 좋아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5~6℃
목포	맑음	-4~6℃
여수	맑음	-1~7℃
완도	맑음	-3~7℃
구례	맑음	-8~6℃
해남	맑음	-6~8℃
장흥	맑음	-6~8℃
고흥	맑음	-4~8℃
순천	맑음	-4~7℃
영광	맑음	-7~5℃
진도	맑음	-5~8℃
전주	맑음	-7~5℃
남원	맑음	-10~4℃
옥산도	맑음	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4/9	4/12	6/13	6/12	5/9	2/5

## “아이티는 6·25때 도와준 나라 전사한 형 대신 은혜 갚아야죠”

담양 한정무씨 100만원 성금. “아이티는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형을 대신해 아이티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형을 잃은 60대가 대지진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에 형을 대신해 은혜를 갚았다며 성금을 내렸다. 담양군 용면에 사는 한정무(69·사진 왼쪽)씨는 5일 오전 담양군청을 방문해 주영찬 담양군수 권한대행에게 “아이티 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씨는 육군 예비역 대위와 예비군 중대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형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한씨는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아이티 국민이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접한 뒤 가슴이 너무 아팠다”면서 “당시 도움을 받았던 것에 보은하기 위해 숨진 형을 대신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 같은 뜻을 담아 적십자사나 아이티 돕기 재단 등에 기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티는 6·25전쟁 때 한국에 구호물자를 지원한 32개국 중 하나로, 현재 화폐기준 96억원을 지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 女종업원 기지로 편의점 강도 잡았다

### 전화 수화기 내려놓고 미적미적 시간 끌어 경찰, 범인 잡고보니 30분 전 택시강도까지

불과 1시간새 택시와 편의점에 서 연쇄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편의점 여종업원의 기지로 범행 직후 붙잡혔다. 연쇄강도 용의자인 신모(38)씨가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한 것은 5일 새벽 2시45분, 10평(32.5㎡) 남짓한 가게 안에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다소 높였다. 휴일인 7일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4도~영상 9도. 월요일인 8일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호기자 khh@

침입 사실을 알린 것이다. 직감적으로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신씨는 욕실을 내뺐은 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가 침입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0m도 못가 붙잡혔다. 범행을 위해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도 벗지 못한 채였다. 그의 가방에서는 청테이프와 흉기 등과 함께 피 묻은 만원짜리 지폐 서랍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추궁한 끝에 신씨가 이날 새벽 2시15분경 삼각동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았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특수강도 즉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돼있는 편의점 전화기 시스템을 이용해 강도

